

## ■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심의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
- 회의일시 : 2017. 4. 25(화)
- 회의장소 :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 전체회의실

<2017년도 오작교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지원심의>의 과정은 심의에 앞서 본 사업의 취지 및 심의 평가 기준, 각 단체들의 심사당일의 발표 자료 및 다양한 평가지표에 따른 증빙 등이 수록된 자료가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배송되었고, 각 심의위원들은 제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을 우선 밝힌다.

그리고 심사 당일에는 전년도에 선정된 총 6개 단체의 발표와 심의위원들의 질의와 응답, 그리고 심의위원들 간의 종합토론에 이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. 이후 2차년도 지원 금액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었고, 순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별적으로 조정되었다(전년대비 지원 예산의 115%부터 80%까지 차별적으로 조정됨).

본 심의 과정에서는 1) 1차년도의 사업계획수립, 2) 사업운영 및 성과, 3) 2차년도 사업 계획 및 4) 행정평가의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,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각 단체들이 과연 “오작교 프로젝트”의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, 그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의 여부였다. 그리고 이에 따른 1차년도의 사업운영 및 성과는 어떠했으며, 그에 대한 단체들의 ‘자체적인 사업평가’의 내용 및 그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검토되었다. 뿐만 아니라 1차년도의 반성을 토대로 2차년도의 사업계획을 보완했는지의 내용도 물론 심의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, 이와 함께 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상응하는 작품인지도 고려하였다.

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본 심의위원들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(일부 소소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) 비교적 본 사업의 취지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,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, 1차년도에 비해 보다 진일보한 2차년도 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하였다. 다만 일부 단체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1차년도의 사업성과를 제출했으며, 발표 내용의 준비도 충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.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에서의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는 과도한 ‘자화자찬’도 감점요인이었음을 밝힌다.

또한 심의위원들의 종합토론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도출되는 작품은 예술적 완성도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.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탄생하는 “오작교 프로젝트”의 작품은 대한민국 음악사의 “역사적 작품”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, 작품의 ‘질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모든 심의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이다. 이에 연관하여 작품의 현장평가 혹은 악보 및 음원제출을 통한 심의를 통한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도 덧붙인다.

<안산시립국악단>의 경우 본 사업의 실행을 위한 행정요원(담당직원)의 부족이 심사위원들과의 질의/응답에서 드러났다. 안산시 당국은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의 추가 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주기를 당부드린다.

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서 각 단체들은 작품이 1회성 연주에 그치지 않고, 작품의 재공연이 거듭되어 각 단체들의 주요 공연 레퍼토리화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계

획을 수립·실행해주기를 당부드린다.

끝으로 본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의 효율성과 2차년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들의 발표와 이어진 심의위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된 2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
심의위원 일동